

인천국제공항 KIRO VIEW 매체 제안서

KIRO VIEW

인천공항 1,2터미널 내 캐리어 저울과 영상매체가 결합된
키로뷰 (KIRO VIEW)는 인천공항 유일의 1,2 터미널 동시 노출 매체

인천공항 이용객
편의성과



광고를 접목시킨
주목도 높은 매체



접종완료 늘자 해외여행 기지개...사이판·괌 노선 활기

중앙일보 | 입력 2021.10.05 00:03
최현주 기자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가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상품을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4일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닫혀 있던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3일 0시 기준)은 77.3%, 접종 완료율은 52.5%다. 2명 중 1명은 트래블 버블 국가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업계는 해외 운항 노선을 하나둘 늘리고 있다. 여행업체는 발 빠르게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트래블 버블 노선은 인천~사이판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개 항공사의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사이판 패키지여행 수요는 모두 증가했다. 마리아나관광청에 따르면 사이판 여행을 예약한 한국 관광객(지난달 말 기준)은 4000명을 넘어섰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달 18일 운항한 인천~사이판 항공편은 탑승률이 85%였다.

이 중 95% 이상이 패키지 상품을 산 여행 수요다. 지난 7~8월에는 트래블 버블 여행객 수요가 항공편당 평균 10명 이하였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한국과 사이판이 트래블 버블 제도를 시행한 후 최대 규모”라며 “연말까지 1000명 이상 예약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제주공항을 이용해 사이판으로 가려는 예약 수요도 1200여명에 달한다. 제주항공도 일주일에 한 번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해당 노선 예약률이 이달은 80%, 다음 달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부터는 갈 수 있는 지역도 많아진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두 번 인천~괌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노선 운항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방역 당국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가 등장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괌 노선 운항을 멈췄다. 예정대로라면 18년 만에 해당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부터 인천~괌 노선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인천~하노이 정기편을 운항하고 인천~하와이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LCC도 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늘길이 열리자 여행업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말 1년 6개월 만에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여행객들은 실내 관광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실외 관광지를 돌아보는 스위스 여행을 즐겼다. 모두투어는 지난 추석 연휴에 패키지여행을 신청한 60여 명을 감으로 보냈다. 1년 6개월여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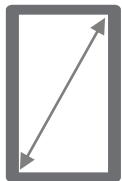
하나투어는 이달 1일부터 정상 근무체제로 돌입했다. 무급 휴직 중이던 직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재택근무 중이던 직원도 사무실로 출근한다. 하나투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매출이 1년 새 90% 이상 감소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1700여 명의 임·직원이 유·무급 휴직에 돌입했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쏟아지면 고사 상태인 여행업체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며 “당분간 동남아시아보다는 괌이나 사이판, 미국보다는 유럽을 가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중앙일보 2021.10.05

백신 접종 완료와 함께 트래블 버블 노선 증가로 해외여행 수요 급증

키로뷰 매체 개요



43인치



15초/
일 150회 이상



1,2터미널
총 18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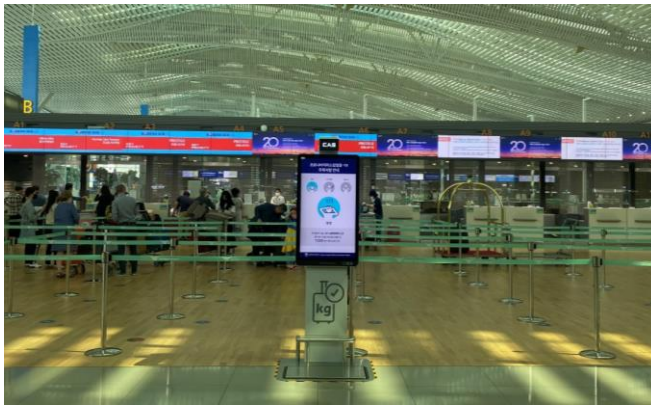


2,000만원
/월/VAT별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동선



체크인 카운터를 통한 수화물 위탁



탑승 게이트 입장 후 항공기 탑승



인천공항 이용 시 키로뷰가 설치되어 있는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함

설치 위치_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1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1터미널 수화물 정리구역



-1터미널 교통 센터



● KIRO VIEW 설치 위치 - 1터미널 120기



-1터미널 탑승 게이트

설치 위치_인천국제공항 2 터미널



-2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2터미널 교통센터



-2터미널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



● KIRO VIEW 설치 위치 - 2터미널 62기

매체 사양

구분	내용	비고
모니터사이즈	43인치	
화면 사이즈	UHD(2160 x 3840)	
운영시간	01:00~24:00(23시간)	
구좌	15구좌	
노출 시간	15초	
영상 제작 사이즈	세로형 2160 x 3840 가로형 2160 x 1214	
파일 형식	MP4	
파일 용량	30MB 이하	

※ 인천공항공사 심의관계로 송출 3일전 영상 전달 요청



광고 노출 방식

KIRO VIEW 위 짐이 없으면 세로형 영상이 표출되며
짐을 올려 무게를 재면 보던 영상 끊김없이 가로형으로 광고를 표출



※ 세로 영상 및 가로 영상 각 1개씩 제작 필요

제작 가이드



세로형 2160 x 3840 / 가로형 2160 x 1214 / MP4 / 30MB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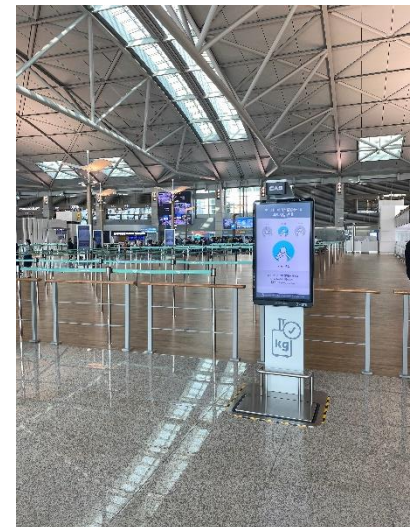
※ KIRO VIEW는 가로형 영상, 세로형 영상 2벌의 영상소재를 필요로 합니다.

제작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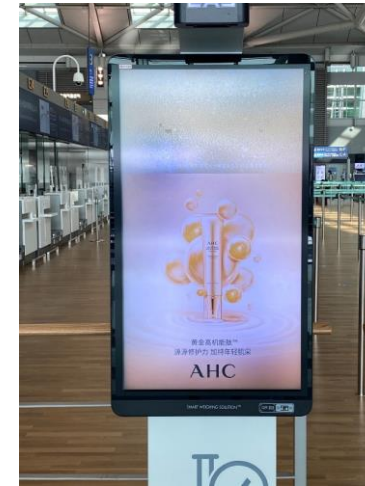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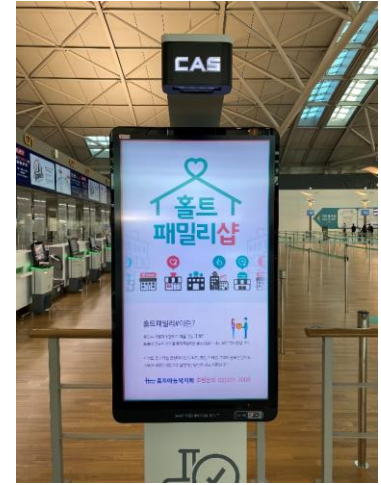
구 분	세로형 영상	가로형 영상
파일 형식	MP4(h.264)	MP4(h.264)
파일 용량	30MB이하	30MB이하
해상도	2160 X 3840	2160 X 1214
압축방식	VBR or CBR	VBR or CBR
비트레이트	5000kb	5000kb
FPS	29.97fps	29.97fps

※ KIRO VIEW는 가로형 영상, 세로형 영상 2벌의 영상소재를 필요로 합니다.

현장사진



현장사진



E.O.D

 **SEOJIN COMPANY**

(주)서진컴퍼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8-6 흥인빌딩 5층

김영욱 대리 (010-4014-0333)

Tel : 02-3672-7977

FAX : 02-3672-1025

E-mail : wook0333@daum.net